

# KOICA 환경사업 평가와 발전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정리: 이택근 / KOICA사업평가실

## I. 평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UNCED)에서 채택된 「리우선언」과 「아젠다 21」에서 ‘지속가능발전’이 인류사회의 발전이념으로 부각되면서 환경보전은 전지구적 과제로 다루어져 왔다. 특히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는 악화일로에 있는 환경문제 해결 방안 등을 포함한 「WSSD이행계획」의 채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빈곤퇴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각국의 참여와 협력, 그리고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2002년 UN 「밀레니엄 개발선언」의 「밀레니엄 개발목표」의 하나로서 ‘환경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채택하여 환경보전의 세계적 규범을 제시하고 각국의 참여와 노력을 촉구하였다. 이처럼 환경

보전은 인류가 공동으로 대응해야할 지구차원의 과제로 부상하였다.

국제사회에서 제기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구차원의 환경보전의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90년대 말부터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의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통하여 환경분야 프로젝트를 전개해 왔다. 2000년대 들어 환경분야 프로젝트는 지속적인 양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환경분야 무상원조 사업은 환경보전과 경제·사회발전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환경악화가 대부분 개도국의 빈곤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속발전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환경분야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중요성과 수요는 점증하는 추세이다. KOICA에서도 2000년대 들어 지구환경보전의 국제적 노력

에 부응하여 환경분야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2005년 기준, 전체 사업비의 13%, 2006년 기준, 전체 사업비의 16.1%),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간다운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공적개발원조사업을 포함한 환경 분야의 해외협력사업은 수원국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는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환경보전, 환경산업의 해외진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의 환경정책과 환경산업의 필요, 환경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국내수요와 수원국의 수요를 결합하여 양국에 상호이익이 되는 “win-win” 전략에 기초한 사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기존의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은 국내 환경 분야의 정책적, 산업적 수요 및 여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였다.

또한 환경 분야 사업은 그 궁극적인 목적이 수원국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기술전수 또는 물자를 공여하는 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관련 정책과 제도의 경험을 전수하고 수원국의 환경관리능력을 개발하는 영역으로 확장될 점이 요구된다.

여기서는 그동안 추진되어 온 환경 분야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과정, 절차 및 내용, 사업의 성과, 확

산 및 지속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환경 분야 사업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환경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발전 방향과 구체적인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II. 평가 목적

본 평가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 수행한 환경 분야 프로젝트 사업이 수원국의 환경보전과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했는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이 수원국의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우리나라 환경수요에 부응함으로써 사업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전 방향과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본 평가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두고 있다.

- 환경 분야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와 목표달성도 확인, 사업수행계획 타당성 평가, 집행전략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 중장기 환경 분야 전략 및 비교우위 분야의 협력사업화 방안 수립

- 사업평가결과 및 자료에 근거한 환경 분야 전략개발
- 사업타당성, 집행효율성, 성과효과성,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수립
-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및 경험전수를 위한 환경 분야 협력사업 모델 개발

#### ■ 환경 분야 프로젝트 수행 가이드라인 제시

- 선진원조국 환경 분야 사업현황 및 사업선정 기준조사
- 환경 분야 사업추진절차 가이드라인 제시

표를 개발하여 관련 문헌조사, 설문조사, 현지조사 및 국내 전문가 조사를 실시한다. 평가 지표는 UN 등 국제기구, KOICA의 자율평가지침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성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조림분야 등 환경 분야 프로젝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7가지 평가항목을 선정하였다.

- 사업선정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합리성
- 사업 추진의 효율성
- 사업 추진의 효과성
- 사업 성과의 파급효과
- 사업 추진의 지속성
- 사업의 참여도

## Ⅲ. 평가 방법

### 1. 평가 대상

본 평가는 지난 2001년에서 2005년까지 5년간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수행해온 3개국 5개 환경 분야 프로젝트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 한·중 황사 관측망 구축사업
- 중국 서부지역 조림사업(5개 지역)
- 중국 밀운저수지 보호림조성사업
- 베트남 산업오염방지 지원사업
- 미얀마 중부지역 산림녹화사업

### 2. 평가 방법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통일된 평가를 위한 평가지

#### 가. 문헌 및 문서조사

- 2001~2005년 기간 중 실시한 환경 분야 5개 프로젝트 사업의 추진 절차, 내용 및 성과 검토
- 환경 분야 등 협력사업평가 문헌 검토
- OECD 회원국의 해외 협력사업 동향 조사

#### 나. 설문지 조사

##### 1) 조사의 목적

KOICA에서 진행한 환경분야 프로젝트 수혜국의 관련기관의 담당자 및 참여자가 갖고 있는 프로젝트에 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여 프로젝트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방안 도출의 근거로 삼고

자 한다.

## 2) 설문 대상

본 조사는 수혜국 관련기관의 프로젝트 담당자 및 참여자, 그리고 연수 참가자에 대하여 구분없이 실시한다.

## 3) 설문지 종류 및 내용

설문지 종류는 해당 프로젝트 평가에 관한 설문지와 관련 연수교육 평가에 관한 설문지의 2가지 종류의 설문지로 구성된다. 설문대상의 일부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한 심층적인 직접인터뷰 및 관찰을 통해 설문을 보완한다. 설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프로젝트에 관한 설문지	연수교육에 관한 설문지
실시현황에 대한 평가 만족정도 사회적 효과에 대한 평가	실시현황에 대한 평가 연수교육의 만족정도 KOICA에 대한 평가 사회적 효과에 대한 평가

## 다. 현지 조사

### 1) 조사대상 국가 : 중국, 베트남

### 2) 조사대상 지역

2001년에서 2005년에 수행된 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북경밀운수원지, 서부조림사업(내몽고 톡료, 감숙성 백운시, 귀양시 3곳), 황사관측소(대련시, 톡료시 2곳), 베트남 산업오염방지사업 등 7곳 및 중

국 임업국, 중국기상국, 북경시 임업국 등 사업주관 정부부처

## 3) 조사방법

- 현지 조사대상국의 사업주관 정부관계자 면담
- 사업현장 방문 현장관찰 및 사업담당자 인터뷰
- 준비된 체크 리스트와 질문지에 따라 조사

## 4) 조사 내용

- 프로젝트 사업의 성과에 대한 현장관찰
- 프로젝트 성과 및 관련 기자재의 유지관리 및 활용 실태
- 프로젝트 사업 담당자 및 연수자의 사업에 대한 인식, 만족도 및 개선점에 대한 의견 수렴

## 라. 국내 전문가 인터뷰 조사

### 1) 조사 대상

- 프로젝트에 참가한 담당자 및 전문가
- 환경 분야 해외협력 관련 전문가

### 2) 조사 내용

- 프로젝트 성과, 효율성 및 지속가능성 인식
- 프로젝트 추진과정 및 절차의 문제점
- 향후 프로젝트 발전방향 및 추진방안

## IV. 평가 결과

### 1. 환경분야 사업 평가

1999년 이후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공적개발사업은 KOICA의 주관아래 주로 중국,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양자간 협력사업(bilateral cooperation)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사업초기에 환경 분야의 사업은 주로 연수생초청과 전문가 파견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최근 들어 프로젝트 사업위주로 전개되고 있다. 환경 분야 프로젝트 사업은 주로 아시아권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에 대한 지원금이 지난 7년 동안 전체 환경 분야 프로젝트 사업의 65%(1999~2005년 누적)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 프로젝트 사업평가 결과

KOICA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분야 협력사업은 대부분 프로젝트형 사업인바, 향후 수원국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 제도 및 자원의 재분배 등으로 사업의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원국의 환경정책은 빈곤탈피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개발, 이용 및 관리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므로 환경분야 협력사업은 개발분야의 협력사업과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프로젝트 사업 추진시, 정책대화를 실시하여,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강화하고, 수원국의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들

이 사업 선정, 계획, 추진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개발협력사업에 연구기관, 기업, NGOs 등 민간부문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ODA 사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 나. 연수생 초청사업 평가

5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연수생 초청 사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연수생 초청 사업을 평가한 결과, 연수교육과정의 수준과 내용은 대체적으로 적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연수내용의 난이도 적정성”, “연수기간 및 시간 배분의 적정성” 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연수생의 실력에 비하여 강의 수준이 높았다고 판단된다. 연수교육과정을 난이도를 기준으로 여러 단계로 나누고 연수내용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연수생의 실력을 고려하여 연수 기간 및 시간의 배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강사진의 전문성”, “강사진의 강의 실력”, “동기 유발 및 참여 유도”에 대한 평가는 높게 나와 강사진의 교수 기법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연수교육을 위하여 제공된 교육장 시설 및 이용환경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게 나타났으며, 연수생 초청 사업을 통하여 수원국 국민의 행복 또는 국가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원대상 환경분야의 진흥/육성에

대한 기여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

## V.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발전 방향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의 사업성과는 저개발국 또는 개도국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수혜국의 환경보전과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이용, 그리고 공여국의 지구환경보전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와 공헌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성과의 극대화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확대발전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항이 되고 있다.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하여 우리나라도 환경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특히 KOICA에서 수행하고 있는 무상원조사업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할 때가 되었다. 이는 특히 OECD/DAC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과 비교 검토하여 환경 분야 공적개발사업을 국제적 수준으로 제고하는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KOICA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SWOT을 토대로 사업의 비전과 목표, 수행 원칙, 추진 전략, 주요사업, 실행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SWOT 분석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은 대외경제협력기

금(EDCF)을 통한 유상원조사업과 KOICA의 무상원조사업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1991년 KOICA의 출범이후 무상원조로 추진되어온 환경 분야 협력사업에 대하여만 SWOT 분석을 진행한다. 공적개발원조의 국내외 여건 변화, 국내 공적개발원조 역량,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력의 현황 등에 근거하여 협력사업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및 위협(Threat)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SWOT 분석결과는 협력사업의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및 주요 협력사업의 도출에 활용될 것이다. SWOT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 [강점(Strength) 요인]

- 한국경제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높아졌으며 공적개발원조사업의 대상인 개도국 및 저개발국과의 사회경제적 교류 협력관계가 강화되어 환경 분야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 2000년대 들어 환경 분야 협력사업을 강화하는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 지난 15년간 KOICA에 의해 무상원조사업이 실시되면서 상당한 정도의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다.
- 개도국과 저개발국에 전파하여 적용할 수 있

는 빈곤극복과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이룩한 우리나라만의 성공적인 환경보전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 환경기술 분야에서 후발주자의 개도국과 저개발국이 필요한 선진적인 오염처리기술의 경쟁

력을 보유하고 있다.

- 민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간부문의 환경보전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표 1〉 환경 분야 협력사업 비전과 추진전략

SWOT 분석			
비 전	건강하고 안전한 지구환경 구현		
목 표	MDGs 실현을 통한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기여 환경선진국가 이미지 형성 및 신뢰관계 구축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지속가능발전 유도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추진원칙	주인의식(Ownership)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성과중심 (Results-Oriented) 실행가능성 (Real Possibility)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및 전파 (dissemination) 참여 (Participation) 및 파트너십 (Partnership)		
추진전략	추진전략지역별 / 국별 협력사업 수행 통합적 접근을 통한 복합효과 추구 참여주체의 다양화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국제환경협력 및 국내환경산업의 수요와 연계 강화		
대상 지역 및 국가	A 그룹(핵심협력)	동북아, 동남아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B 그룹 (전략협력)	서남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파키스탄, 이란, 코스타리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 케냐, 탄자니아, 페루
중점협력 분야	지역별 / 국가별 중점 협력분야 및 주요사업		
추진체계	실행기반 구축		

### [약점(Weakness) 요인]

- OECD/DAC의 여타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공적개발원조의 원조재원 규모가 작고 영세하다.
- 환경 분야의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무상원조 사업간 유기적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분절적으로 수행되어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 사업추진방식에 있어서 프로젝트형 사업을 분산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지구, 지역 및 주요국가의 주요 환경현안 및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력의 중점사업과 수요와 연계가 부족하며, 환경산업 등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진출과 환경NGO의 해외활동을 위한 지원역할이 사실상 부재하다.
-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사업내용이 제대로 개발되어 있지 않으며, 사업추진체계상 환경 분야 협력사업 고유의 기획, 사후관리 및 평가가 미흡하다.

### [기회(Opportunity) 요인]

- 새천년개발목표(MDGs)로서 '지속가능한 환경확보'가 명시되는 등 환경 분야 원조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여건이 조

성되고 있다.

-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국내적으로도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환경 분야 협력사업을 확대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다.
- 지구 및 지역차원의 환경협력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 국제환경협력의 위상이 강화되고 다자간 양자간 환경협력사업이 다양한 차원에서 활성화되면서 원조사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경제적 통합이 가속화되고 개도국 및 저개발국가와 경제적 교류협력이 확대되면서 환경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중국, 동남아시아 등 후발개도국의 환경정책이 강화되면서 이들 국가에서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이 도입으로 친환경적 개발이 진행되면서 수원국의 빈곤과 질병퇴치, 자원의 이용과 관리 분야에서 환경 분야와 개발 분야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사업추진을 요청받고 있다.



### [위협(Threats) 요인]

-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공적개발원조의 국내 경제적 토대가 약화되고 있으며, 국민적 지지와 관심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 노령화사회 대처,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 분야와 남북협력의 진전에 따른 남북관계 분야에서 재정수요가 급증하면서 공적개발원조의 재정축소 압박이 심해지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의 위상과 개도국 및 저개발국과의 교역이익에 부응하는 국제적 책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국제적 기준에 일치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물자 및 기자재 공여위주의 프로젝트형 사업에서 탈피하여 협력사업의 방식과 유형의 전환이 필요하다.
- 환경 분야가 개발사업 분야로 다루어지면서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환경 분야 원조사업의 시장에서 선진국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 2.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기본 구상

### 가.비전과 목표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의 수

행과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비전과 목표는 첫째,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와 국제협력사업에서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위상정립을 통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공적개발원조의 정책방향과 목표와 일치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우리나라의 여건 및 이익에 부합하는 한국형 환경 분야 협력 프로그램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위상과 그에 따른 역할은 무엇인가. 환원하자면 환경 분야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인가.

KOICA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 분야 협력사업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지구환경보전을 국제적 활동의 주요사업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즉 환경 분야 협력사업은 환경오염의 악화, 생태환경의 파괴, 자원의 고갈, 기후변화 등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지구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국제적 위치에 걸 맞는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이행하는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관련 정책 및 사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국제사회의 환경현안에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를 국제사회에서 환경선진국가로서

의 국제적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함과 아울러 지구, 지역 차원의 환경보전에 있어서 국제사회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환경 분야에서 선진화된 국가 이미지는 단지 환경 분야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그치지 않고 상품교역, 투자, 교육, 관광 등 광범위한 분야에 직간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또한 지구환경문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신뢰받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MDGs와 같은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여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통해 국제사회에 널리 거양하고 홍보함으로써 이러한 이미지 형성과 신뢰관계 구축을 도모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셋째,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빈곤과 질병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여 이들 국가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뒷받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들 국가와 우리나라와의 교역확대 및 에너지와 원자재를 확보하는 등 사회경제 분야에서의 파급효과를 얻는 전략적 수단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 이들 수원국은 환경, 빈곤, 경제의 문제가 상호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 분야 협력사업과 경제 분야에서의 개발과 협력사업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 환경정책과 제도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고 환경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위상을 가지고 있다. 환경시장은 주로 관련정책

의 시행에 의해 창출되기 때문에 정책의존성이 높은 것이 일반적인 특성이다. KOICA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을 통해 수원국에게 환경정책과 제도를 개발 지원하여 환경시장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환경사업은 협력사업의 결과물로 창출된 수원국의 환경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위상과 역할에 대한 설정으로부터 KOICA에서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환경 분야 무상원조사업의 장기 비전은 '건강하고 안전한 지구 환경 구현'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는 환경 분야 무상원조사업의 목표로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에 기여, 환경선진국가 이미지 형성 및 신뢰관계 구축,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지속가능발전 유도,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등 4가지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 나. 수행 원칙

KOICA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수행과정에서 고려 또는 준수해야 할 6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 주인 의식(Ownership) : 수원국의 환경보전의 궁극적인 책임은 수원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 관련기관 및 국민들에게 있으므로 원조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보장하고 배양하는 것을 사업수행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첫째, 수원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환경보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우선순위에 근거하여 원조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존중함으로써 수원국의 자발적인 적극성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수원국 스스로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이 없는 수원국의 환경보전에 원조사업이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성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환경 분야 원조사업의 계획 및 이행과정에서 수원국의 주인의식의 확보는 필수불가결한 기본원칙으로 준수될 필요가 있다.

■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 원조사업의 성과는 수원국의 관련 주체의 실행력과 관리능력에 의해 원조사업의 집행과 성과가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수원국의 환경보전능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환경 분야 원조사업이 수원국의 환경보전과 환경정책 발전에 미치는 기여효과는 주인의식과 같은 주관적 요인뿐만 아니라 수원국 국내의 제도, 정책, 기술수준, 관리능력, 인적자원 등 객관적인 요인으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 **성과중심(Results-Oriented)** : 원조목표의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원조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얻고자 하는 원조성과에 근거하여 원조사

업을 선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원칙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환경 분야의 원조사업은 수원국내의 환경보전에 대한 직간접적인 기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즉 성과달성에 중심을 두고 목표, 목표 달성수단, 효율적인 실행관리체계 및 사업수행의 주체별 역할과 책임소재 등 원조사업의 수행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 **실현가능성(Real Possibility)** : 원조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는 사업선정에 있어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 가운데 하나이다. 수원국의 여건은 원조사업의 실행과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원국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수원국의 환경보전 정책과 우선사업에 적합한 차별화된 원조사업을 수행하는 원칙이 지켜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원칙의 준수를 통해 제한된 자원을 선택적으로 집중하고, 수원국의 상황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여 원조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및 전파(dissemination)** : 환경보전사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 없이는 확보된 성과를 지속하기가 쉽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상호 밀

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또는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환경 분야 원조사업은 사업계획 입안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전파를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 참 여 (Participation) 및 파 트 너 십 (Partnership) : 환경보전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기업, 해당지역 주민, NGOs 등 이해당사자들의 공동의 참여와 합리적인 역할분담에 기초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특히 지방정부, 기업과 지역주민의 참여여부는 환경보전사업의 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환경 분야 원조사업은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파트너십의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다.추진 전략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추진 전략은 UN MDGs의 실현하고 OECD/DAC 및 각국의 환경과 개발,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는 차원에서 설정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OECD/DAC에서 강조하고 있는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원조 원칙, 빈곤과 환경의 상관성, 수원국의 능력배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여타 개발사업과의 상생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KOICA가 수행해 온 기존의 협력사업의 평가를 통해 도출된 미비점 및 문제점을 개선하고 한 단계 발전시키는 차원에서 협력사업의 추진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지역별/국별 협력사업 수행]

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사업별 사업수행 방식을 지역별/국별 원조프로그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사업방식과 유형을 다변화해야 한다. 기존의 사업은 KOICA에서 수립한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수원국의 수요와 사업여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 근거한 지역별/국별 프로그램(Regional/ Country Program)에 기초하여 추진되기 보다는 외교적 결정 또는 공급자 중심으로 추진된 면이 있다.

한편 KOICA에서 수행하고 있는 환경 분야의 협력사업은 다른 분야와 유사하게 특정 문제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형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단계 진전된 후속사업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물론 프로젝트 사업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수원국의 유사한 프로젝트에 전파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해당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및 자원의 재분배의 영역으로 발전되기는 쉽지 않다. 중국 서부지역 조림사업의 사업계획 및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사실상 조림 후 식재의 활착상태만을 사업성과의 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에 따른 주민의 인식변화와 자원이용방식

의 전환, 소득증대, 지방정부의 조치와 예산투입과 같은 서부생태계 보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인식, 제도 및 사회경제 분야에서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그 효과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환경 분야 협력사업은 기존의 특정문제 중심의 사업별 프로젝트형 위주에서 탈피하여 지역별/국별 사업방식으로 전환하고 사업방식과 유형의 다변화로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수원국의 환경보전은 결국 수원국 자신이 해야 한다는 사실에 입각하여 제도와 정책에서의 연구개발, 관리 및 집행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등 환경보전에 필요한 국가와 사회의 기반조성과 능력배양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 사업을 통해 개발된 인적자원에 의해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환경기초 시설 건설과 같은 프로젝트형 사업 영역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방식과 유형의 다변화는 중장기 지역별/국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으로 추진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특히 보다 구체적으로 중점협력대상 개도국 또는 저발전국을 선정하여 지역사회와 부문의 여건에 근거한 차별화된 프로그램(Community/ Sectoral-based Program)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통합적 접근을 통한 복합효과 추구]

환경문제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개발과 이용의 문제와 떼어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기실 개도국과 저개발국의 환경

실태가 열악한 지역일수록 환경의 문제는 빈곤의 문제이다. 예를 들면 사막화 문제는 사막화 지역주민들이 생존을 위한 개발과 이용이라는 인위적인 요인과 기후변화 등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막화 방지를 위한 인위적인 요인의 제거수단으로 초원과 경지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며, 경제활동의 내용과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원국의 환경정책은 빈곤탈피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개발, 이용 및 관리방안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

환경문제의 이러한 본질적 특성 때문에 환경 분야의 협력사업은 개발 분야의 협력사업과 긴밀히 연계한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막화방지 협력사업은 초원 생태관광개발 등과 같은 개발 분야 협력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실시(Integrated approach)함으로써 사막화 방지와 주민의 생존과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복합효과(multi effects)를 가져올 수 있다. 보건의료와 농업 등 여타 관련 분야의 협력사업도 환경 분야와 긴밀한 연계하여 통합추진이 필요하다. 주지하다시피 음용수 수자원 수질과 하천수질의 보전은 주민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환경 분야 협력사업과 보건의료분야 협력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한다면 음용수 및 하천의 수질은 보전하고 주민들의 건강도 지키는 복합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산림, 경지, 초원, 생물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협력 사업은 또한 농업의 생

산성 증대와 지속가능성 보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통합적 접근을 통한 복합효과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개발 분야의 협력사업 가운데 지역사회의 관리능력개발 프로그램도 관리능력개발과 환경보전의 두 가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산림, 수자원, 경지, 초원,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원은 개도국 농촌, 어촌 및 산촌 지역사회의 주요한 생존자원으로서 이러한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자연자원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자연자원의 관리효율을 제고함으로써 주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고 동시에 자연자원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여주체의 다양화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

환경 분야 협력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정부 위주로 수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벗어나 연구기관, 기업, NGOs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업과 주민의 참여가 관건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참여주체의 다양화는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참여주체의 다양화는 사회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협력사업을 다양화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정부, 기업, NGOs 등 협력주체의 다양한 참여에 기초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참여주체 사이에 유기적인 공공-민간의 파트너십(Public-Private Partnership)을 구축하여 협력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국제환경협력 및 국내환경산업의 수요와 연계 강화]

KOCIA의 황사공동관측망 구축사업을 비롯한 환경 분야 협력사업은 환경부 등 우리나라 관련부처 및 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국제환경협력의 수요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된 온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기존의 협력사업은 관련부처와 KOICA간에 국제환경협력의 수요와 KOICA 사업의 연계 전략에 따라 계획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긴급한 수요에 부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따라서 기존의 협력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연적 요소를 탈피하여 우리나라가 수행하고 있는 지구, 지역, 국가간 차원의 다자간/양자간 환경협력의 수요와 KOICA의 지역별/국가별 특성화 협력프로그램을 보다 긴밀한 연계한 추진전략의 수립을 통해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 수요와 연계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수원국의 환경관리제도와 환경시설의 건설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사업을 KOICA가 국내 관련기관 및 기업을 통해 지원해줌으로서 국내기업의 수원국 환경시장진출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계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KOICA와 국내 관련기관 및 기업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 2. 지역별/국별 협력 방안

### 가. 대상 지역 및 국가 선정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DAC 주요 국가는 국별 원조 프로그램에 의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ICA에서 수행해온 환경 분야 협력사업은 개발협력사업 가운데 프로젝트형 사업으로서 수원국의 참여하에 수원국의 당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원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별 원조계획 하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런데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대상인 환경문제는 여타 분야의 문제와는 달리 국가간 범위를 넘어서 지역 또는 지구차원의 문제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적 범위에서 국가간에 기후, 지리 등 자연적 환경과 경제, 문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에서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그런 연유로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지역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는 환경문제가 지역별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당면하고 있는 주요한 지역 환경문제가 상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환경 분야의 국별 협력사업계획은 지역의 환경문제 특성과 환경 분야 협력수요를 고려한 바탕위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지역별/국별로 협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상 지역과 국가를 선정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KOICA의 원조재원은 선진국에 비해 소규모이며, 따라서 원조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

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즉 수원국과 우리나라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진행 현황 및 여건, 정책의지 및 수요에 근거하여 중점 협력 지역과 국가를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분야를 한정하여 집중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선정절차가 필요하다. 먼저 일정한 분류기준에 따라 KOICA 무상원조 대상국가 가운데 중점협력 대상 지역과 국가로 선정될 수 있는 잠재적 요건을 갖춘 지역과 국가군을 추려낸다. 다음으로 잠재적 요건을 갖춘 지역과 국가군에서 대상으로 협력사업의 내용과 수원국의 협력의지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협력 대상 지역 및 국가를 선정한다.

먼저 잠재적 대상 지역과 국가는 우리나라 환경협력 현황 및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6가지 선정기준에 따라 6개 국가그룹으로 나누어 대상 국가를 선정하였다.

첫째, KOICA 특별협력국 그룹. KOICA에서 정한 무상원조 대상국가 127개국 가운데 주요 원조 대상국가인 20개 특별협력국을 선정하였다. KOICA 전체적인 주요 원조사업 대상 지역과 국가군을 환경 분야 중점협력 대상 지역 및 국가의 선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직접 환경영향국 그룹. 황사 등 우리나라의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국가를 선정하였다.

셋째, 환경협정 협력국 그룹. 우리나라와 양자간 협력협정 또는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 협력을 추진해 왔거나 협력의사가 상호 확인된 국가를 선정하였다.

넷째, 환경사업 진출국 그룹. 우리나라 환경산업의 주요 진출국 또는 환경부 등이 진출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국가를 선정하였다.

다섯째, 통합접근 협력국 그룹. 환경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 농업 및 에너지 분야에서 KOICA가 원조사업을 수행해온 국가를 선정하였다.

여섯째, 경제/자원 수요국 그룹. 경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국가, 그리고 에너지 등 자원의 주요 수입 또는 개발대상 국가를 선정하였다.

한편 지역 선정에 있어서는 KOICA 무상원조 대상 국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서유럽, 북미 및 오세아니아 지역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환경문제의 특성과 상호영향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지역을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위와 같은 선정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KOICA의 잠재적인 환경 분야 협력사업 대상 지역과 국가는 <표 2>와 같이 총 8개 지역에 걸쳐 38개국이 선정되었다. 지역별로 잠재적 대상 지역과 국가수를 살펴보면 동남아시아가 잠재적 대상국이 가장 많고,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서남아시아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KOICA의 무상원조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의 공적개발원조 규모와 환경 분야 협력사업이 점하는 비중을 살펴볼 때, 위의 38개 국가 모두를 대상으로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망할 뿐 아니라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다.

따라서 <표 2>에서 열거한 38개 잠재적 대상 지역과 국가 가운데에서 중점적인 협력대상 지역과 국가를 1차적으로 집중 지원해야 할 ▲ A 그룹 : 핵심협력 지역 및 국가, 지역별 거점 확보 및 여타 사업과의 연계를 목적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할 ▲ B 그룹 : 전략협력 지역 및 국가 등 2가지 그룹으로 분류 선정하여 지역별/국가별 중점협력 분야와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중점 협력대상 지역 및 국가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한 지역과 국가는 <표 5-4>와 같다.

#### [A 그룹 : 핵심협력 지역 및 국가]

-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력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및 국가
-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상생(win-win)”의 환



정보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 및 국가

역 및 국가

- 환경보전 정책, 제도 및 관리능력 개발, 환경 기술개발, 환경시장 창출을 통한 국내 환경산업 진출 등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수요가 많은 지역 및 국가

- 의료보건, 농업, 에너지 등 여타 분야와 연계 협력이 필요한 지역 및 국가

- 교역/자원 등 경제 분야 필요에 따라 협력이 요구되는 지역 및 국가

### [B 그룹 : 전략협력 지역 및 국가]

- 환경협력의 지역 전략거점으로 육성해야할 지

〈표 2〉 38개 잠재적 대상 지역과 국가

분류	KOICA 특별협력국	직 접 환경영향국	환경협정 협력국	통합접근 협력국	환경산업 진출국	경제 / 자원 수요국
동북아	중국, 몽골	중국, 몽골	중국, 몽골	중국, 몽골	중국	중국
동남아	베트남, 태국, 필리핀, 라오스,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	아세안 (베트남과는 개별 협정 체결함)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아세안
서남아	네팔,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	파키스탄	파키스탄, 네팔	파키스탄	
중앙아시아	우즈베크스탄	-	na	na	na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이집트	-	이집트, 수단, 부룬디, 케냐	이집트,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케냐	나이지리아
중동	이라크	-	요르단, 이란, 쿠웨이트	na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남아메리카	페루, 파라과이	-	코스타리카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페루,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동유럽	우크라이나	-	na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na	na

〈표 3〉 환경 분야 협력사업 중점 지역 및 국가(총 10개국)

그룹 분류	지 역	국 가
A 그룹 (핵심협력 지역/국가)	동북아, 동남아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5개국)
B 그룹 (전략협력 지역/국가)	서남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파키스탄, 이란, 코스타리카,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집트, 나이지리아, 케냐, 탄자니아, 페루 (10개국)

## 나. 지역별 중점협력 분야 및 국가별 주요사업

### 1) 동북아시아 중점협력 분야

동북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지역으로서 오염물질의 국가간 이동과 같은 역내 국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동의 지역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몽골에서 발원하여 장거리 이동하는 국가간 대기오염물질인 황사와 산성강하물의 피해와 영향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육상의 진행된 대형개발사업과 육상기원 오염물질로 인한 주변 해역의 생태환경변화와 해양오염에 직면해 있다. 현재 동북아 각국의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이 필요한 지역 환경 현안은 〈표 4〉와 같다.

〈표 4〉 동북아 지역 차원의 주요 환경 현안

대기 분야	해양 분야	기타 분야
에너지기원 국가간 이동 대기오염, 황사, 산성비	육상·선박 및 해상 기원 폐수 유입, 폐기물 투기, 해양생태계(염도, 온도) 변화	사막화, 산림파괴, 전자 폐기물 이동오염, 국경 하천 오염사고 및 수생태계 파괴

이러한 황사 등 동북아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0년대 중반부터 각국의 정부, 연구기관, 원조기관, NGOs, 기업 등은 양자간 또는 다

자간 지역협력을 전개해 왔다. KOICA에서 수행해 온 중국서부조림사업, 한중 황사공동관측망 사업 등도 동북아의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통해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협력사업을 통해 지역 환경협력의 채널과 인적네트워크가 형성되어가고 있으며, 역내 국가간에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공통인식과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다.

최근 지난 10여 간의 협력성고를 토대로 동북아 지역 환경상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지역 환경협력의 주요국가인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 국가를 중심으로 협력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 발맞추어 동북아지역에서 KOICA가 수행해야 할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중점은 바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피해를 저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환경정책의 강화로 중국에 환경시장이 급성장하여 중국발 ‘개도국 환경특수’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11차 5년

(2006~2010년)의 환경계획에서 환경보전핵심 전략으로 자원순환경제를 표방하는 등 환경관련 계획과 정책을 크게 강화하고 있어 중국의 환경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정부도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대중국 환경협력사업의 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두 차례의 한중 양국 정상회담(1998, 2003)에서 양국간 “환경산업 협력강화”에 합의하였고, 양국간 환경장관 회담을 통해 환경산업협력 약정체결을 체결하고 4개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양국간의 합의에 따라 중국 북경시에 「한중환경산업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 환경산업전시회에 참가하고 지방도시에서 우리나라 환경산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환경 분야 공동기술개발사업, 환경전문가 초청연수, EDCF 시범사업 발굴 등 협력사업을 실시하여 중국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전방위적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환경산업계의 사업과 연계하여 환경산업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KOICA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이 요청되고 있다. 개도국의 환경정책의 설계 및 실행, 환경설비를 지원하는 양자간 협력사업은 개도국 또는 저개발국 내에 새로운 환경시장을 창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협력사업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공공기관 또는 업체의 시장진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이미 자국의 ODA 무상원조를 통한 환경 분야의 교육훈련, 정책지원

등 다양한 기술지원 프로그램의 수행으로 수원국 내에 이들 선진국의 환경기술과 설비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자국의 환경기업체의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동북아시아에서 KOICA가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두 번째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중점분야는 정부 부처 및 관련 기관의 프로그램과 적극 연계하여 국내 환경산업의 중국진출을 지원하는데 두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수자원 개발과 이용, 신재생 에너지 등 분야와 환경 분야간의 통합적인 협력사업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건조, 반건조 지대인 몽골의 남부 지역과 중국의 서북부지역은 기후적인 요인과 열악한 생태환경 등 요인과 비합리적인 수자원 개발 및 이용과 인구과부하 등 요인으로 인하여 수자원 고갈, 생태환경파괴, 빈곤의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자원 문제와 빈곤 및 생태환경문제는 긴밀한 내적 연관 고리를 갖고 있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인 수자원 개발과 이용은 이들 지역의 빈곤문제와 생태환경 파괴문제를 함께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반면에 이들 지역은 풍력, 태양광 및 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의 잠재적 자원이 풍부하다. 취사, 난방 등 분야에서 기존의 관목 등 연료를 대신하여 이러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여 이용하게 되면 연료채취 등 행위가 감소됨으로써 생태환경압력이 줄어들고 환경보전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보전과 수자원 및 에너지 개발 이용의 목적을 통합한 방식의 사업을

KOICA가 동북아에서 수행할 필요가 있는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세 번째 분야로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동북아의 세 가지 중점협력 분야와 관련된 국가별 주요 협력사업은 다음과 같다.

## [중국]

### ■ 동북아 환경현안 대응 분야

- 황사 관측정보공유 및 예경보 체계 구축 및 국가간 일원화 사업
- 황사 발원지 토양생태환경 관측 및 데이터 이용체계 구축사업
- 사막화방지 조림기술단지 조성사업

### ■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중규모 도시지역 환경계획수립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EDCF차관사업과 연계)
- 오염배출자동측정시스템(TMS) 구축 및 관련 제도 구축 사업

### ■ 통합적 협력 분야

- 친환경 초원관광 관리제도 구축 및 능력배양 사업

## [몽골]

### ■ 동북아 환경현안 대응 분야

- 황사 관측소 설치 및 데이터 전송관리 능력배양 사업

- 사막화방지 초지복원기술단지 조성사업

### ■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대도시지역 환경계획수립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EDCF차관사업과 연계)

### ■ 통합적 협력 분야

- 지하수자원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계획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계획 수립 사업

## 2)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KOCIA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중점방향과 국가별 주요사업은 동남아의 사회경제 현황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주요 환경현안, 우리나라와의 환경협력 현황, 환경시장 여건 및 진출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협력사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와의 관계. 주지하다시피 동남아시아는 세계경제의 주요 성장지역에 속한다. 동남아시아는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고 있는 지역이다. 아세안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남아 국가들은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5.55%의 실질 GDP성장을 기록하였다.<sup>1)</sup> 하지만 평균 1인당 GDP는

1) 외교통상부(2004), 아세안 경제통계(2004. 10),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1,266달러로 소득수준은 아직 빈곤층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세안은 우리나라의 5번째 교역국으로 2004년도에 한·아세안 교역액이 464억 7백 4십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대 아세안 투자액도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누적투자액이 125억 달러에 달하는 등 교역과 투자 등 면에서 주요한 경제파트너이다. 때문에 동남아시아의 경제상황은 우리나라의 경제안정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 동남아 금융위기 시기에 이러한 관계를 이미 체험한 바 있듯이 동남아시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이렇듯 동남아시아와 우리나라의 관계는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에서 KOICA 환경 분야 협력사업은 동남아시아의 지속가능발전 역량을 제고하여 동남아 수원국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함께 우리나라와의 안정적인 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동남아시아의 주요 환경현안. 앞에서 언급했듯이 급속한 경제성장은 동남아국가들의 환경상황을 악화시켜 왔다. 동남아국가들의 주요 환경현안인 수질오염과 대기오염상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무분별한 산림벌채, 이동경작을 위한 인공방화, 과도한 관광개발로 인한 육지와 연안생태계 파괴 및 생물다양성 감소 등은 동남아국가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문화재를 포함한 경관자원, 생물다양성 등 생태자원이 과도한 관광개발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다음으로 동남아 국가의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제개발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대도시 주변의 수질오염은 생활과 산업폐수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수질오염은 농업과 농촌지역에 분산된 중소산업체의 폐수에 기인한다. 그리고 동남지역의 대기오염문제를 살펴

〈표 5〉 동남아 국가의 주요 환경 현안

구 분	주 요 환 경 현 안
현안산림황폐화 / 생물다양성 감소	산불, 하천유역지역의 산림황폐화, 해변 홍수림 유실, 산림벌채, 이동경작, 산림 생태계 퇴화
도시대기오염	자동차 혼잡 및 배기, 먼지오염
계절적 스모그 / 연기	산불로 인한 월경성 대기 오염
토양퇴화	토양유실, 토양오염, 토양생산력저하
수질오염	수질오염, 수인성질병, 지하수오염, 산업오염, 하천유역관리, 유기물질오염
도시화 / 폐기물 관리	이주, 고형폐기물 오염, 위해물질/위해폐기물
해안 / 해양환경 퇴화	과도한 어업활동, 해안 홍수림 파괴, 산호초 파괴, 오일유출, 과도한 관광
자연재해	홍수

자료 : UNEP(2000), "Key Environmental Issues for South East Asia"

보면 가장 주요한 대기오염원은 모터사이클을 포함한 자동차와 발전소이다. 또한 일부 대도시에서는 유연연료의 사용을 금지하고 무연연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국가와 농촌 및 중소도시에서는 아직도 유연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인체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상수도 보급률이 매우 낮아 상당수 주민들은 안전하고 깨끗한 음용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각종 환경성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심각한 환경현안에 대응하여 동남아 국가들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실천프로그램의 부재, 사업재원의 부족, 인적·기술적 측면에서 관리능력의 미비, 개발부처와 지방정부의 성장드라이브 정책 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도시와 농촌지역의 환경악화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러한 동남아 지역의 환경현안 및 각국의 환경정책 실태에 근거했을 때, KOICA는 동남아의 핵심협력국과 전략협력국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국가별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국가별 주요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의 전파, 관리시스템 및 기술능력 배양 등 분야에 협력사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동남아의 환경시장 현황 및 진출여건. 환경시장에서도 동남아 지역은 중국과 함께 이른바 '아시아 환경특수'를 창출하면서 세계 환경시장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2000년의 147억 달러에서 약 85.7% 확대되어 2010년에는 273억 달러 규모의 환경시장이 형성되어 세계 환경시장의 4%를 점할 것으로 예측된다. 성장률에 있어서도 중국, 중·동부 유럽, 인도 등과 함께 6% 이상의 고도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상하수도 분야에서 2000년의 78억 달러에서 2010년에는 146억 달러로 87.2%, 폐기물 분야는 48억 달러에서 85억 달러로 77.1%로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상하수도와 폐기물 분야에서 105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증가하여 전체 증가액 126억 달러의 절대다수인 83.3%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하수도 시설 폐기물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건설, 설비, 관리운영 등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환경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정기술 및 에너지관리/재생에너지 분야는 시장규모가 상대적으로 작는데 비해, 2010년 약 3배에서 6배로 시장규모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시장수요는 동남아 국가의 경제발전의 수요와 선진국이 교토의정서 이행과 수요가 결합하여 청정개발기제(CDM)를 통해 선진국이 청정기술과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동남아 국가와의 환경협력과정에서 형성될 것이다.

현재 선진국과 세계적인 환경기업 사이에서 떠오르고 있는 위와 같은 동남아 환경시장을 선점하려는 쟁탈전이 치열하다. 환경부와 국내 환경기업도 동남아 시장진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과 함께 동남아시아 환경산업 진출의 교두보를 구축하기 위해 베트남과의 환경협력약정체결, 한·베트남 환경협력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환경산업협력단 파견 및 환경산업설명회 개최 등의 사업을 전개해 왔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아세안 10개국 환경전문가를 국내에 초청하여 연수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KOICA에서도 이러한 관련 부처 등과 함께 국내 환경산업의 동남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동남아 국가와 환경협력을 추진하는 1차적 목적은 동남아 환경시장에 진출하여 우리나라 기업이익을 도모하고 동남아 국가의 환경보전에 기여하는데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KOICA는 기존의 사업을 바탕으로 환경현안에 대한 국가별 지원프로그램과 결합하여 국내 환경산업의 동남아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협력사업 뿐만 아니라 에너지의 보고인 동남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신재생 에너지 개발 등을 지원하는 협력사업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은 EDCF차관과의 유기적인 역할분담 하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환경계획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노하우는 KOICA 무상원조로 제공하고, 계획에 따른 환경설비투자는 EDCF 차관으로 공여하는 방식을 택하여 수원국의 원조에 대한 유인력을 높이고 정책의 지를 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시장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 [베트남]

### ■ 지속가능발전 분야

-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사업
- 국가청정생산프로그램 개발 사업

### ■ 환경현안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폐기물관리계획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 도시 및 농촌 산업단지 환경관리 사업
- 도시 및 농촌지역 음용수개발 및 관리 기법 사업
- 친환경도시개발계획수립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 ■ 통합적 협력 분야

- 지하수자원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이용계획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계획 수립 사업

## [캄보디아]

### ■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 및 농촌지역 수질(정수 및 하수)관리 사업
- 시엠렙지역 환경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 통합적 협력 분야

- 앙코르와트지역 문화 및 경관자원 친환경개발이용계획 수립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인도네시아]

■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지역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청정자동차보급계획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 통합적 협력 분야

- 바이오 에탄올 등 친환경 에너지 개발 및 보급 지원 사업
- 산림보호기술, 산림자원조사 및 모니터링 기법, 산림 바이오매스의 이용,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산림의 복원 등 지원 사업

3) 기타 지역

서남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지역은 주로 각국의 우리나라와 상품교역, 투자 또는 자원개발 등 경제적 관계 및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협력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로 중점협력 분야를 선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서남아시아는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분야, 중동과 중앙아시아는 에너지 개발과 연계한 통합적 협력 분야,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는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분야에 관한 협력사업의 전개가 요청되고 있다. 지역별로 선정된 전략적 거점 국가의 주요 협력 사업은 다음과 같다.

[파키스탄]

■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지역 폐기물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기법 개발 분야
- 도시지역 대기오염 총량관리를 위한 청정자동차보급계획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 도시지역 수질(정수, 하수)관리기법 개발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이란]

■ 통합적 협력 분야

- 유전지역 토양복원/수질 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기법 개발 분야
- 친환경적 관광자원개발 및 이용 분야

[코스타리카]

■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지역 상·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능력 개발 사업

■ 통합적 협력 분야

-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관리 분야(과학기술부의 생물다양성 연구센터 지원과 연계)
- 친환경적 수자원 개발 및 이용 분야



### [우즈베키스탄]

-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지역 수질(상수, 하수) 관리능력 배양사업

### [카자흐스탄]

- 통합적 협력 분야
  - 유전지역 토양복원/수질 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기법 개발 분야
  - 친환경적 수자원 개발 및 이용 분야

### [이집트]

-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지역 대기총량관리를 위한 청정자동차 보급 계획 및 관리능력 배양 사업
  - 도시지역 상·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능력 개발 사업

### [나이지리아]

-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지역 음용수 공급 및 위생 관리 기법 사업
- 통합적 협력 분야
  - 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분야
  -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계획 수립 사업

### [케냐]

-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지역 수질(상수, 하수) 관리를 위한 제도 및 서비스 제고

### ■ 통합적 협력 분야

- 나일강 접경지역 수자원의 친환경적 개발 및 관리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의 설정 및 관리, 전략 및 action plan 개발, 연구 및 훈련
-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

### [탄자니아]

-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지역 수질(상수, 하수) 관리를 위한 제도 및 서비스 제고

### ■ 통합적 협력 분야

- 나일강 접경지역 수자원의 친환경적 개발 및 관리
- 산림 보전 및 관리
- 광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분야

### [페루]

- 환경현안 대응 및 환경산업진출 촉진 지원 분야

- 도시지역 상·하수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능력 개발 사업

#### ■ 통합적 협력 분야

-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관리 분야

### 1. 환경 분야 협력사업 수행체계

#### 가. 환경 분야 협력사업 추진 기반 강화

지역별/국별 단위의 중점협력 분야 및 주요 협력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계획수립, 사업 수행 및 사업평가 등 일련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KOICA의 사업추진 기반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사업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관련 부처와 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협력사업전문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환경협력사업전문위원회(가칭)’에는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담당자, 수출입은행, 한국환경산업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담당자, 그리고 연구기관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환경협력사업전문위원회(가칭)’를 KOICA의 환경 분야 협력사업의 방향과 전략의 수립, 국별 협력프로그램의 수립, 집행 및 평가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국가별 협력프로그램의 수립 주체로서

우리나라와 수원국의 관계자 및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별 협력팀’을 조직하고, 수원국의 환경실태, 정책의지, 협력수요 등을 조사·분석하여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수원국의 정부부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계획단계에서부터 수원국을 주체적으로 참여케 함으로서 협력사업에 대한 수원국의 주인의식과 정책의지를 제고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수원국의 여건과 수요가 반영된 현실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 협력팀’에서 수립한 계획은 우리나라와 수요국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추진하면 된다. 그런데 ‘국가별 협력팀’은 계획수립 후 해체되는 것이 아니라 매 계획단위가 종료될 때까지 프로그램의 수행 및 평가를 담당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나. 환경 분야 협력사업 계획 단위

국가별 맞춤형 협력프로그램은 구체적인 세부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획단위를 다르게 설정해야 한다. 먼저 국별 협력계획 또는 분야별 환경계획/관리계획의 수립사업은 2~3년을 한 계획단위로 하여 2, 3년 동안 수원국의 환경 분야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 수립사업은 곧바로 후속사업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소규모 시범사업을 포함한 관리능력 배양 사업은 환경보전대책의 효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환경 분야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적어도 5년을 계획단위로 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사업의 성격에 맞다. 그리고 국별 맞춤형 협력프로그램은 위에서 제시한 ‘국가별 협력팀’이 매년 연례사업평가회의를 개최하여 당해연도 사업을 평가하고 연도별로 수정·보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을 집행하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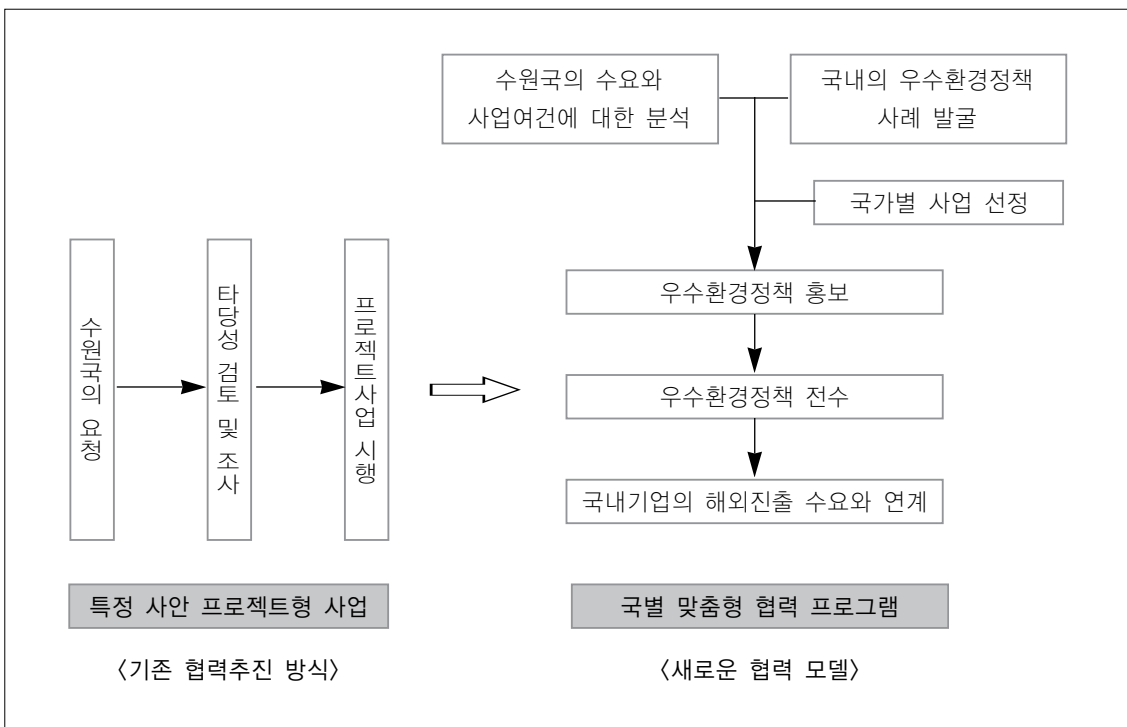
#### 4. 환경 분야 협력사업 모델

도시화·산업화로 인하여 다양한 환경오염문제가 나타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90년대 이후 새로운 환경제도들을 시행하였다. 초기단계에는 선진국의 제도를 들여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

으면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와 정책들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환경정책 사례들은 TMS(Smokestack Tele-Monitoring System, 굴뚝원격감시체계),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쓰레기 종량제 등이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우수한 환경정책을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우수한 환경정책을 단순히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적개발원조를 통하여 우수한 환경정책의 시행 경험과 노하우를 개도국 및 저개발국에게 전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교우위를 가지는 정책들

〈그림 1〉 환경 분야 협력사업 추진체계 발전방향



을 중심으로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협력사업을 진행한다면 특정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젝트형 사업 위주의 기존의 방식보다 더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KOICA를 통한 환경 분야 협력사업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내 환경산

업의 해외진출 수요와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즉, 수원국의 환경관리제도 또는 환경시설의 건설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사업을 KOICA가 국내 관련 기관 및 기업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수원국 환경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다.